지역 게임기업, '지스타 2025' 집결…글로벌 시장 공략

광주 9개·전남 6개 참여 16일까지 각 공동관 운영 투자유치・퍼블리싱 계약도 '지스타 2025'에 참여한다.

게임전시회 '지스타 2025'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.

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정보문 보를 펼친다. 화산업진흥원은 각각 '광주글로벌게임센

광주공동관에는 모비소프트, 스튜디오 브리즈, 아름게임즈, 지니소프트, 커피 성 플랫폼인 'GCC사관학교'도 홍보 부스 인 거래와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. 광주·전남지역 게임기업들이 국내 최대 캣, 행복한다람쥐단, 쓰리데이즈, 제로 젯, 팀 다다 등 광주를 기반으로 한 9개 게

전시 부스는 아홉 가지 원색을 활용해 터 공동관'과 'JNGC 공동관'을 구성해 13 각 기업과 콘텐츠의 개성을 표현했으며, 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경품 이벤트와 휴식 공간 등 참관객이 즐 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.

또한 GICON의 글로벌 콘텐츠 인재 양

전남 공동관에는 티써프, 뉴솔트, 만듦,

시뮬레이션, MMORPG 등 장르별 신작을 선보인다.

특히 B2B 중심의 전용 비즈매칭 공간을 노린다. 확보해 글로벌 퍼블리셔와 투자사와의 1 대 1 상담, 네트워크 협력 회의 등 실질적

지역 게임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 임사가 참여해 주요 게임을 시연하고 홍 애니듀, 로컬앤컴퍼니, 더호라이즌 등 6개 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. 광주와 전남 다"고 말했다.

게임사가 참여해 시뮬레이션, 퍼즐, 연애 기업들은 참관객 체험과 B2B 네트워킹을 동시에 진행하며, 투자 유치와 퍼블리싱

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"이번 지스타 공동관 참여를 통해 광주 기 반 우수 게임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 진출 이번 공동관 운영은 단순 전시를 넘어 할 발판을 마련하고, 참관객 피드백과 글 로벌 바이어 네트워킹을 동시에 확보하겠

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도 "전남 게임기업들이 자생력 있는 강소기업 계약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으로 성장하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"고 전했다.

> 한편 지스타 기간에는 글로벌 게임 트 렌드와 기술 흐름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도 열려, 참가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맞춘 전 략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될 전망

> > 이승홍 기자 photo25@gwangnam.co.kr

박셀바이오-서울대 약학연구소 황반변성 DDS치료제 연구 협약

항암면역치료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 는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와 최근 황 반변성 항체치료제 DDS(약물전달시스 템) 제형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(MOU)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.

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항체치료 제 DDS 플랫폼 연구 협력을 비롯해 보유 장비와 기술, 시장정보의 상호 공유, 공동 연구 과제에 대한 행정 및 기술 지원 등에 서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.

황반변성은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로 현재는 대부분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를 억제하는 약물을 안구 내 직접 주사해 치

치료 효과는 입증이 됐지만 안구에 직 접 주시를 놓는 주사제여서 많은 환자들 이 공포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나타내고

박셀바이오는 이러한 주사제형 치료제 를 대체할 환자 친화적인 새로운 황반변 성 치료제 VCB-1502를 개발하고 있다.

기존 항체에 비해 크기를 줄인 나노바 디 항체 기반의 VCB-1502는 DDS 제형 으로 안구 침투율 등이 우수해 주사제형 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미생 물 기반 생산 시스템을 갖춰 생산 효율도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.

VCB-1502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(VEGF)가수용체(VEGFR)와결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생 혈관 형성을 억 제하는 원리로 작동한다.

박셀바이오는 실제 연구에서 VCB-1502 나노바디 항체의 우수한 VEGF 항 원 결합력과 생체 내 VEGF 억제를 통한 신생 혈관 생성 차단 능력을 확인했다.

송대웅 기자 sdw0918@gwangnam.co.kr



운천저수지, 도심 속 여가 명소로 재탄생

광주경제일자리재단, 피크닉존 운영 호응 공공배달앱 연계 상권 특화 체험이벤트도

했다.

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'운 천상권 특화 콘텐츠 개발 및 피크닉존 운영' 사업이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.

이번 사업은 침체된 수변상권에 활 력을 불어넣고, 도심 속 여가문화와 지 역 소비가 공존하는 '체험형 상권활성 화 모델'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.

재단은 지난 9월 26일부터 이달 2일 까지 매주 금•토•일 총 15회에 걸쳐 피

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수변상권이 이 방문하고 434명이 광주시 공공배달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 명소로 탈바꿈 앱 '땡겨요'에 신규 가입하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.

> 운천저수지 일대에 조성된 피크닉존 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식 공간으로, 캠핑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인기 스 포츠 경기와 영상 콘텐츠가 상영됐다 도심 속에서 가족・연인・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'작은 수변 캠핑장' 분위 기가 조성되면서 주말마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.

특히 '땡겨요'와 연계한 현장 참여형 크닉존을 운영했으며, 1279명의 시민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. 신규 가입자 소'로 자리 잡았다.

에게 1만원 상당의 배달상품권을 제공 한 결과, 434명의 신규 이용자가 늘며 공공앱 활성화와 지역상권 매출 증진 이라는 성과를 거뒀다.

피크닉존 운영은 시민이 직접 참여 해 상권 변화를 이끄는 모델로 발전했 다. 플로깅 캠페인을 통해 환경정화와 상권 이미지 개선을 추진하고, '미스터 리 쇼퍼'와 '리빙랩 프로그램'을 병행 해 시민이 직접 진단하고 즐기는 상권 활성화 방식을 실현했다.

이번 피크닉존 운영은 '시민이 머무 르고, 소비하며, 즐기는 지역상권 문화 공간'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.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층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, 저수 지 일대는 '주민이 만든 도심 속 여가명

서울어린이대공원에 '현대자동차 정원' 개장

"사회적 가치 창출···ESG 경영 실천 나눔활동 지속"

서울어린이대공원에 현대자동차 이름 을 딴 공원이 조성됐다.

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에서 현대차 국내 고 설명했다. 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, 국내지원사업 부장 윤효준 상무, 서울시 곽관용 정무수 석, 서울어린이대공원 손성일 원장, 초록 우산 신정원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'2025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식'을 개최했 다고 13일 밝혔다.

을 리모델링한 현대차 정원은 900m² 고말했다. (272.25평) 규모로, 계절감을 살린 관목 으로 이뤄진 초화 정원, 커뮤니티 휴게공 간, 이동식 스툴, 현대차 브랜드 월 등으 로 구성됐다.

현대차는 한옥 기와 등 전통 양식을 재 다. 정현아기자 aura@gwangnam.co.kr

해석해 한국적인 미를 담아낸 디자인을 정원 곳곳에 적용, 전통과 현대가 어우리 현대차는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 진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

현대차 관계자는 "서울어린이대공원은 연간 700만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, 아름답게 변화한 '현 대자동차 정원'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길 바란다"며 "앞으로도 사 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노후한 정문 광장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"이라

> 한편 현대차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포레스트런 캠페인, 울산 북구 일대 '울산숲' 조성 사 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



현대차는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에서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, 서울시 곽관용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'2025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식'을 열었다.

